

갤러리현대 11, 12월의 전시

최 우 람: 램프샵 프로젝트



전시문의
보도관련문의

갤러리현대 (02-2287-3500) www.galleryhyundai.com
www.webhard.co.kr ID galleryhyundai2 / PW 3500
[갤러리현대] - [11월 전시_최우람]
기획팀 김한들 010-2032-0363 / 02-2287-3585

1. 전시개요

전 시 명: 최우람 '램프샵 프로젝트'
전시장소: 갤러리현대, 아트큐브
전시기간: 2013. 11. 12(화) – 12. 15(일)
관람시간: 11:00 – 20:00
참여작품: 기계조각 총 10점

2. 전시내용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만드는 연금술사, 최우람
새로운 시도, 풍부한 이야기의 신작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갤러리현대, 아트큐브에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국의 대표적 키네틱 아티스트 최우람(b. 1970)의 램프샵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 작업으로 주목 받아온 작가의 **10점 신작으로만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신작에는 모두 불 켜진 램프가 등장한다.

최우람은 움직이는 기계생명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흥미로운 탄생설화를 수반하여 관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이끌며 주목받아온 작가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다뤄온 기계 생명체에 대한 상상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이번 신작들을 통해 작가는 관객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존의 이야기, 시스템,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시도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램프샵은 인적 드문 길 위에 홀로 빛을 내며 서 있는 작은 공방에서 로봇트를 만들고자 했던 작가의 어린 시절 꿈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램프샵은 기존 전시관람시간보다 늦은 저녁 8시까지 개방한다.), 램프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들리에에는 작가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보았던 산호초의 움직임과 닮아있다. 신작에 등장하는 램프가 뿜어내는 빛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비추는 것이다.

최우람의 이번 프로젝트는 갤러리현대,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큐브 모양의 아트큐브는 이번 전시를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거쳤다. 외관은 검은색 가벽으로 빛을 철저히 차단하여 오직 램프의 빛만이 밝게 빛나도록 한다. 고동색으로 도색 한 벽은 어둠 속에서 램프 작품의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추게 한다. 이렇게 작품은 아트큐브가 가진 좁고, 어두운 공간적 특징 속에서 더욱 매혹적으로 빛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의 기계 생명체에 대한 사유와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작품소개



Gorgonian Chandelier, 2013,
metallic materi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resin, CPU board, motor, LED),
200 (h) cm



Temple Lamp, 2013,
metallic materi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24 k gold leaf, glass, resin (CPU board,
motor, LED),
36 x 50 x 82 (h) cm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기계의 모터, CPU 보드를 잘 보기 위해 불빛이 들어오는 LED 보드를 넣었다. 그 불빛의 깜박이는 모습이 살아있는 심장 같다는 생각을 하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지난봄,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본 산호와 물고기들의 움직임에서 이 감정을 다시 경험했다. 날개처럼 펄럭이며 그 사이로 불빛을 내뿜는 대형 상들리에의 모습은 산호의 움직임을 닮았다. 개체마다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들리는 모터 소리는 바람 소리 같다. 숲과 바다를 함께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작가는 1990년대부터 기계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약 20여 년 동안 만드니 신의 마음, 창조자의 마음이 궁금해졌다. 한 치의 오차에도 작동을 멈춰버리는 기계의 완벽함을 위해 본인이 노력하듯 신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은 신에게 가장 완벽한 형태는 무엇일까, 그가 완벽하게 구현해낸 생명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숙고에 잠기게 했다. 'Temple Lamp'는 작가의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이러한 숙고를 담은 작품이다. 대학 시절 배낭 여행으로 간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본 발다키노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품의 한가운데서 빛나는 불빛은 생명을 의미한다.



Cakra Lamp, 2013,
metallic materi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resin, CPU board, motor, LED),
18 (벽에서부터) x 55 (지름) cm

2002년 제작한 차크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차크라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또는 '원반'을 의미한다. 힌두교와 탄트라 불교의 일부 종파에서 행해지는 신체수련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기능이 합쳐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로 부딪힐 것 같지만 절대 부딪히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작품은 서로 긴밀한 연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보여준다.

4. 작가소개 및 약력

최우람(한국, b. 1970)은 살아서 움직이는 기계 '기계생명체'를 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키네틱 작가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계 문명과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발언뿐 아니라 그 미학에 대한 논평까지 포함해 발전시켜가고 있다.

최우람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정교한 움직임,' 그리고 '기묘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이다. 어릴 적부터 기계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녔던 작가는 인간 문명의 산물인 기계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복제, 번식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모티브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체의 관절과 심장을 지닌 듯한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마치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듯 작가가 만들어낸 학명으로 명명되는 기계 생명체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기계 생명체들은 그 자체의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부여된 흥미로운 탄생설화를 수반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 기계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설득력 있는 해설은 관객들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작가 스스로뿐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도 '이러한 기계 생명체의 세계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사유를 하게 된다.

최우람 작가는 이처럼 독창성과 완성도를 지닌 작업으로 국제적 작가로서의 두각을 드러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상하이 비엔날레, 2008년 리버풀 비엔날레에 참여하였으며 동경 모리미술관, 뉴욕 비트폼 갤러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 등에서 전시했다. 갤러리현대, 아트큐브에서 열리는 램프샵 프로젝트에 이어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단체전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력

- 1999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졸업
1993 중앙대학교 조소과 졸업

개인전

- 2013 갤러리현대 아트큐브, 서울, 한국
아니마 (Anima), 보루산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터키
2012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존 커틴 갤러리, 퍼스, 호주
2011 아시아 소사이어티 뮤지엄, 뉴욕, 미국
새로운 도시의 인류, 프리스트 시각예술 센터, 네쉬빌, 미국
2010 프리스트 시각예술 센터, 네쉬빌, 미국
비트폼즈갤러리, 뉴욕, 미국
2008 아니마 기계들, 스카이더베이스하우스, 동경, 일본
2007 크로우 컬렉션, 달라스, 텍사스, 미국
2006 새로운 역동적인 조각, 비트폼 갤러리, 뉴욕, 미국
도시에너지, 맘 프로젝트, 모리미술관, 동경, 일본
2002 울티마 머드폭스, 두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2001 170개의 박스로봇, 헬로우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1998 문명속주, 갤러리보다, 서울, 한국

단체전

- 20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수퍼네이처 한국현대미술, 크리스티 프라이빗 세일즈 갤러리, 뉴욕, 미국
2012 한국의 눈 2012,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두산갤러리 서울 재개관전,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구글 시대정신 2012, 더 그로브, 런던, 영국
2011 뉴욕 2011: 창작자들 프로젝트, 덤보, 뉴욕, 미국
개관전, 최정아갤러리, 서울, 한국
코드네임 (조셉 클리닉을 살려라 파트2), 요셉의원, 서울, 한국
2010 팝 팝 팝(POP POP POP),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발전소,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향기로운 봄, 엉겅래벙 아트센터, 파리, 프랑스
아시아현대미술의 정신, 학교재 갤러리, 서울, 한국
아이로봇,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사이버네틱스, 포항 시립 미술관, 포항, 한국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가상선,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 제주도립미술관 오픈기념 특별전: 숨비소리, 제주 도립 미술관, 제주, 한국
 네시의 정원, 가나아트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 2008 FACT, 리버풀비엔날레, 리버풀, 영국
 아시안 아트 트리엔날레, 맨체스터 아트갤러리, 맨체스터, 영국
 열린 공간 2008, NTT 커뮤니케이션센터, 동경, 일본
- 2007 공간의 영혼, 비와코 비엔날레, 오미하치만, 일본
 여름 단체전, 비트폼즈 갤러리, 뉴욕, 미국
 아르코 아트페어, 주빈국 전시, 마드리드, 스페인
- 2006 제 6회 상하이비엔날레—하이퍼디자인, 상하이, 중국
 서울구상조각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서울의 숲 야외조각 심포지엄, 서울의 숲, 서울, 한국
 아트바젤, 바젤미술관, 바젤, 스위스
- 2005 개관전, 비트폼 서울, 한국
 아트바젤, 바젤미술관, 바젤, 스위스
 하드코어 머신전, 아트페이스 휴, 서울, 한국
 개관전, 치우공예관, 과천, 한국
- 2004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전, 리움, 서울, 한국
 정지와 움직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한국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꿈나비 2004, 서울랜드 특별전시관, 과천, 한국
 아트바젤, 바젤미술관, 바젤, 스위스
 중국 국제갤러리 박람회, 베이징 박람회장, 베이징, 중국
 오피시나 아시아 (Offisina Asia), 국립현대미술관, 볼로냐, 이탈리아
 아모리쇼, 피어 90 & 92, 뉴욕, 미국
- 2003 예술가는 마법사, 갤러리아트사이드, 서울, 한국
 거짓과 공상,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국제 디지털아트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한국
 다리 밑 D.U.M.B.O 미술축제, 뉴욕, 미국
 아트바젤, 바젤미술관, 바젤, 스위스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한국
 왕자와 공주, 현대갤러리, 서울, 한국
 전력, 한전플라자갤러리, 서울, 한국
- 2002 우리의 집, 신사동 주택, 서울, 한국
 미술로 보는 월드컵,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
 공간, 그 무한한 가능성(공연),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울, 한국
 곤충의 행성, 서호미술관, 양수리, 한국
 몽환, 몽환, 서울, 한국
 새로운 얼굴 2002, 토탈야외미술관, 장흥, 한국
 상상력과 호기심,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01 워킹 디그리 제로 (Working Degree Zero), 갤러리보다,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두 극점 읽기,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디지털아트 네트워크, 테크노마트, 서울, 한국
 어린이달,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인공생명,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넷-플랜트 프로젝트 (Net-Plant Project),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 2000 조각놀이공원,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중앙조각회, 종로갤러리, 서울, 한국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 사비나갤러리, 서울, 한국
 불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시대의 표현-눈과 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예기치 않은 방문-유별난 집,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 1999 가제트 공화국, 갤러리창고, 일산, 한국
 한국 현대미술 90년대 정황, 엘렌킴머피 갤러리, 서울, 한국
 도시와 영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데몬스트레이션 버스 (Demonstration Bus),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중앙조각회,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릴레이, 강애란 작업실, 서울, 한국
 '99 아홉 용머리, 청주박물관, 청주, 한국
 불임,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미메시스의 정원-생명에 관한 테크놀러지 예술,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 1998 '98 아홉 용머리, 대청호, 청주, 한국
 중앙조각회, 토탈야외미술관, 장흥, 한국
- 1997 가칭 삼백 개의 공간, 담갤러리, 서울, 한국
 제 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청년정신, 교육홍보관, 광주, 한국

수상 & 레지던시

- 2009 두산갤러리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미국
 김세중 조각상 청년 조각 부문 수상, 김세중 기념 사업회, 서울, 한국
- 2006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순수미술 부문 수상, 문화관광부, 서울, 한국
 제 1회 포스코 스틸아트 어워드 대상, 포스코 청암재단, 포항, 한국